

미래에셋생명-PCA생명 합병 완료

35兆 '빅' 보험사 탄생... “변액보험·은퇴설계 강자로”

<업계 5위>

보장성·변액 투트랙 전략 확대
수수료 수입 240→450억 예상
헬스케어 등 상품 라인업 강화

미래에셋생명의 PCA생명 합병이 완료됐다. 35조원 규모, 업계 5위 수준의 '빅' 보험사가 탄생했다.

미래에셋생명은 5일 PCA생명 인수를 마무리하고 통합 미래에셋생명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11월 미래에셋생명이 PCA생명 지분 100%를 170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통합 미래에셋생명을 이끌 대표이사는 하만덕 부회장, 김재식 부사장이 내정됐다. 각각 영업 및 관리부문을 총괄하며 오는 27일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기존 PCA생명 고객들은 오늘부터 전국 133개 미래에셋생명 지점 및 고객행복센터에서 업무가 가능하다.

미래에셋생명의 규모 확대로 보험업계



미래에셋생명은 5일 서울 강남구 미래에셋생명 강남점에서 미래에셋생명 하만덕 부회장(오른쪽 두 번째부터), 김재식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법인 출범을 기념했다. /미래에셋생명

의 지각변동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래에셋생명의 총자산은 지난해 말 29조원에서 34조7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삼성·한화·교보 등 이른바 '빅3' 생보사와 농협에 이어 업계 5위 수준이다.

지난 5일 현재 6조3700억원의 변액보험 자산은 10조5500억으로 늘어 '빅3' 생보사와 함께 10조 클럽을 형성했다. 전체 고객은 220만명에서 250만명으로 이 중 변액보험 고객은 30만명에서 44만명으로 증가

하는 등 장기 성장을 위한 저변을 확대했다. 설계사 수도 5200명으로 늘어났다.

규모의 성장에 맞춰 미래에셋생명은 보장성과 변액보험의 투트랙 전략을 확대해 가치 경영의 발판을 다져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10조 클럽에 가입한 변액보험은 업계 최고의 전문성을 갖출 전망이다. 이미 미래에셋생명이 업계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거둔 변액보험 조희보험이 PCA생명을 합쳐 지난해 11월 기준 6318억원으

로 압도적인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변액보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 역시 지난해 240억원에서 450억원으로 크게 뛸 것으로 보인다. 해외투자 비중도 61%로 1위를 이어가며 업계 평균인 8%를 훌쩍 뛰어넘는 등 글로벌 분산 툈자를 지속한다. 현재 미래에셋생명은 변액보험 중장기 수익률 유형별 1위를 독식하고 있다.

업계 최고 수준의 변액보험 펀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미래에셋생명은 최적의 펀드 라인업을 갖췄다. 보유펀드 개수는 126개에서 171개로 늘어나 단일 속성 펀드 기준 업계 최다 펀드를 제공하여 고객의 선택권을 크게 높였다. 주력상품인 '글로벌 자산관리 변액적립보험'의 경우 텁제 펀드는 34개에서 40개 이상으로 늘어나며 합리적인 글로벌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품 라인업도 강화됐다. 헬스케어 서비스를 도입해 고객의 건강증진 활동과 연계한 보장성 라인업을 늘린다. 특히 변액보험의 해외투자 라인업을 더욱 다양하게

갖춰 은퇴설계 시장에서 연금전문 1등 보험사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영업조직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원도 계속된다. 기존 PCA생명 지점에 미래에셋생명 서포터 지점을 일대일로 매칭해 글로벌 투자전문 그룹의 기업문화를 전달하고 시너지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미 전자청약이 활성화된 미래에셋생명의 업무 시스템에 맞춰 PCA생명 출신 FC들에게는 스마트패드를 지원하고 전 지점 순회교육을 통해 전자청약을 활성화 한다. 동시에 업무별 헬프데스크를 운영해 달라지는 고객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하만덕 미래에셋생명 부회장은 "통합 전부터 양사는 이미 '고객의 평안한 노후에 기여한다'는 비전을 공유하며 공동의 경영전략을 실행해왔다"며 "통합 시너지를 통해 재무설계 기반의 보장자산과 글로벌 자산배분 기반의 안정적 연금자산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변액보험 및 은퇴설계의 강자로 발돋움하겠다"고 전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metroseoul.co.kr



광화문글판에 찾아온 '봄' 교보생명은 5일 광화문글판에 '봄편'을 내걸었다. 이번 문안은 김광규 시인의 시 '오래된 물음'에서 가져왔다. 생동감 넘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놀라운 생명력을 느끼듯 새봄을 맞아 희망찬 삶을 살아가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날 가족이 '봄편'이 내걸린 광화문 교보생명빌딩 주변을 걷고 있다. /교보생명

셀트리온·신라젠 임직원도 '대박'

» 1면 '줄잇는 스톡옵션 신화...'서 계속

'셀트리온'과 '신라젠' 임직원들도 요즘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 회사 주가가 껑충 뛰면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큰 돈을 벌게 생겼기 때문이다.

셀트리온은 2011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임직원에게 240만여주 규모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이 중 행사되지 않은 스톡옵션은 182만3102주(2017년 9월 말 기준)에 이

른다. 지난 2일 주가(37만2000원) 기준으로 6782억원 규모다.

신라젠 직원들도 표정관리 중이다. 신라젠 주가는 지난해 초 1만원을 넘나들었지만 지난 2일 10만5600원까지 오르면서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2위에 올랐다. 신라젠 임직원 99명은 스톡옵션 276만9000주를 3000원~1만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일 주가(10만5600원) 기준 수익률만 2358.67%에 이른다. /김문호 기자 kmh@

드 9.7(5명) ▲3등 이마트상품권 10만원권(10명)을 제공한다.

사전에 해당 항목으로 거래외국환 지정이 돼 있는 고객은 새로운 모바일뱅킹 플랫폼인 신한 쇼(SOL) 또는 글로벌S뱅크를 통해 본국 송금이 가능하다.

오는 8월 말까지는 미화 3000불 이하 송금 시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전신료도 기준 8000원에서 5000원으로 할인하는 이벤트도 적용하고 있다. /채신화 기자

전북銀, 신용 8등급에 대출 '따뜻한 금융'

임용택 은행장 서민금융지원 행보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 지원도

임용택 전북은행장이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 비전을 선포하고 저신용자 대출, 금융 클리닉 등 본격적인 서민금융지원 행보에 나섰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새 정부의 포용적 금융에 발맞춰 신용등급 8등급까지 금융 지원을 확대해 은행의 문턱을 낮췄다고 5일 밝혔다.

전북은행은 신용 6등급 이상 평균 금리가 24.0%가 넘는 상황에서 금융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JB따뜻한 신용대출', '새희망 훌씨', '사잇돌' 등의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따뜻한 신용대출은 재직 6개월 이상 신용 6~8등급에게 최대 1000만원을 대출해 주는 상품으로, 은행권 심사 대상이 아니었던 8등급 고객까지 지원하고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분들에게 은행



임용택 전북은행장

의 문턱은 높고, 이자는 비싸고, 갚아도 원금은 줄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고객들 중 상환의지가 있어도 제대로 된 심사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는 이러한 고객의 상환 의지를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환의지가 강한 고객을 대상으로 20%대의 고금리에서 10%대의 중금리로 전환해 금리 절벽을 해소하고 금리 세이브로 원금 상환이 이뤄지다 보면

신용등급도 높아지는 선순환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은행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E-9 대출', 건설근로자를 겨냥한 '체인지업론'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금융지원도 더 확대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전북은행의 '따뜻한 금융' 행보는 임용택 행장의 의지다. 임 행장은 올해 '포용적 금융 추진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직접 단장을 맡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는 3월초에는 전주와 서울에 '따뜻한 금융 클리닉'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기존 은행 영업점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따뜻한 금융 클리닉은 대기 번호표를 없애고 예약제로 카페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방문 고객 누구나 금융 전반에 대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곳에서 직원들은 상담을 통해 고객에게 다양한 금융 정보와 탄력 근무제 시행 등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

NH농협생명
여성질병 보장보험 출시



NH농협생명은 5일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여성특화질병을 보장하는 '여성안심NH농협여성질병보험(무)'를 출시했다.

'여성안심NH농협여성질병보험(무)'은 만 15세에서 최대 65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종신·건강·암 보험의 보장을 모두 아우르는 비갱신형 여성건강종합보장 상품이다.

유방암 또는 여성생식기 관련암 등 여성 특정암, 여성 특정 수술, 여성 특정 입원에 대한 보장 등 여성암보에 특화됐다. 여성

담고 있다.

유니버설 기능으로 자유납입·중도인출 등이 가능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주계약 가입금액의 일부 혹은 전부를 미리 지급하는 선지급보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선지급보험금은 지급형태에 따라 50%지급형, 80%지급형, 100%지급플러스형으로 다양하다. 특히 100%지급플러스형의 경우 고액질병 진단 또는 고액 수술 시 가입금액 전부(100%)를 지급받고 이 후 사망 시 가입금액 20%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가입금액은 1000만원에서 최고 6000만원까지다. /이봉준 기자